2026. 2. 9

금융 Weekly Insight

주주환원의 힘 – KB금융, 이제 PBR 1배를 바라보다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2월 둘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KOSPI가 5000을 기준으로 높은 변동성을 시현 중인 가운데, 금융 업종은 은행과 보험이 각각 10.8% 및 4.0%의 견조한 수익률을 보인 반면, 증권주는 0.4% 하락하며 일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
- 지난 주의 하이라이트는 4Q25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었던 은행업종. 특히, 은행들의 26년 낙관적 실적 가이던스와 25, 26년 두 해에 걸친 주주환원 강화가 주가 상승을 견인.
- 증권주의 경우 증시 조정에 따라 동반 하락세를 보였으며, 반면 보험주는 금리상승 및 증시 조정 과정에서 방어주 성격 부각되며 반등.

금융 Overview

- 은행 – KB금융, 이제 PBR 1배 고지가 바로 눈 앞!: 은행주는 10.8% 상승세를 시현한 가운데,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은행들의 실적 발표. 일차적으로 26년 실적 가이던스는 우호적이었는데, 은행들은 1) 이자이익의 성장과 2) 충당금 하향 안정화, 3)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에 따른 실적 개선을 제시하며 견조한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 특히, 실적 발표의 백미는 은행들의 주주환원 강화. 1) 기업은행 제외 모든 은행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을 위한 25년 연말 결산 배당 증액을 실시하였고, 2) KB, 신한, 하나, iM금융은 감액배당 주총 안건 상정을 공표하였으며, 3) 우리금융과 JB금융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Update를 통해 주주환원율 상향을 공식화하였고, 4) 분기 균등 배당을 실시하는 KB, 신한, 하나금융은 26년 연간 배당의 유의미한 증가와 더불어 상반기 자사주 매입을 발표. 특히, KB금융이 이 중 백미였는데, 동사는 25년 주주환원율 52.4%에 이어 26년 상반기 중 발표된 주주환원으로만 이미 주주환원율 47%를 달성, 하반기 자사주 매입 시 60%에 근접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음. 앞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1Q 실적 기대 이외의 추가적인 모멘텀으로는 1) 3월 주총에서의 감액배당 확정, 2) ELS 과징금 관련 금액 확정 통한 불확실성 해소, 3) 일부 은행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update 공유 등이 될 것으로 전망.
- 증권 – 잠시 숨 고르기: 증권 업종 주가는 0.4% 하락하였으나, KOSPI 대비로는 소폭 아웃퍼폼. 증시 조정에 따른 업종 전반적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미래에셋증권(+12.3%)만이 주초 스페이스X 합병에 따른 자산 평가이익 증가 기대감으로 주간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증권 업종의 경우, 증시 하락 시 동반하여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여주며, 현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시장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1) 여전히 국내 증시의 경우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이며 거래대금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2) 이에 따라 연간 실적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소폭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가 조정 시 비중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보험 – 방어주 성격 부각: 보험 업종은 w-w 4.0% 상승하며, 오랜만에 KOSPI 업종을 아웃퍼폼.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국내외 장기채권 금리 상승세 또한 부각되며 전반적으로 보험업종에 우호적인 투자심리 조성된 것으로 판단. 한편, DB손해보험의 경우 행동주의 펀드의 공개 캠페인 개시에 따라 시장 관심도가 집중되며 시장, 섹터 대비 초과 상승률 기록. 그간 보험업종 주가는 비우호적인 보험손익 펀더멘탈에 따라 시장 내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만큼, 부정적 뉴스 흐름보다는 긍정적 뉴스에 주가 탄력성이 높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2/2) KB 가계대출 목표초과에 따른 26년 총량 페널티** - KB의 25년 연간 대출 증가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106.0%로 집계. 동사는 작년 2.2조원의 가계대출을 늘렸는데, 이는 목표치 2.0조원을 초과. 참고로, 5대 은행 중 목표치 초과 은행은 KB가 유일. - 감독당국 관계자는 초과액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에 비해 절반으로 낮춘 점 등을 일부 감안할 것으로 알려졌음. - 참고로,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5.3조원 가계대출을 늘리며 목표치 대비 4배를 상회.	**페널티 가능성 고려 필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 대출 순증 목표를 하반기 절반으로 낮춘 점이 반영될 경우, 페널티 적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 필요. 실제로, KB는 2조원 목표치대비 6%만 초과된 상황인 점 고려 필요. **적용되어도 부담 미미할 전망:** 설령, 페널티가 적용되어도 실제 부담은 미미할 전망. 1) 초과분은 실제 1,209억원으로 2조원 목표대비 6%에 불과하고, 2) 올해 은행들은 가계대출보다는 생산적 금융을 기반으로 기업대출 증가에 보다 초점을 둘 계획이기 때문. **은행들 연간 RWA 증가율 목표 4~5%:** 은행들은 4Q 실적 설명회에서 26년 RWA 증가율 가이던스를 일부 공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다수 은행들의 해당 목표는 4~5%로 알려짐. 특히, 25년 중 성장이 더뎠던 은행들은 올해 성장성을 일부 더 높일 계획도 있는 것으로 언급. 다만, 이의 핵심은 가계가 아닌 생산적금융 및 기업금융.
	(2/2) 은행 대기자금 한달새 30조 감소 - 3년만에 최대치 기록 - 5대 은행에서 1월 한 달간 빠져나간 대기자금 (요구불예금)은 30조원을 상회. 이는 2023년 1월 34조원이 빠져나간 이후 최대 수준. 이에 대한 이유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증시 투자가 원인일 것으로 해당 언론 보도는 분석. - 한편, 1월 가계대출은 1.8조원 감소.	**머니무브 현상은 맞다:** 증시로의 머니무브 현상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 실제로 증권사 예탁금의 증가와 최근 증시 거래대금의 급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넘어갔음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 그리고, 이의 대표적인 자금원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일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 **하지만, 은행 요구불예금 30조 감소가 모두 증시로 흘러간 것은 과대해석:** 그러나, 30조원이 모두 증시로 흘러갔다는 가정은 과대해석.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물론 수신 전체를 놓고 볼 때, 가계의 비중은 50%를 소폭 하회. 나머지 절반 이상은 기업과 공공 및 기타에서 점유하고 있음. 즉, 기업의 자금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자금들이 은행 수신의 절반 이상을 설명. 이에 해마다 1월은 요구불예금이 50조원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연말 기업들의 재무제표 관리를 위해 현금성 자금을 높이되, 1월이 시작하면 이를 재차 인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 실적 시즌에서도 일부 은행들은 머니무브와 관련된 변화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판단.
	(2/3) 일부 은행 과징금 충당부채 20% 적립 - 일부 은행들은 25년 경영실적에 홍콩 ELS 과징금 통보분대비 20~30%만 충당부채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남. KB, 하나, 농협은 20~30%만 적립한 반면, 신한은 50%를, SC는 100% 적립. - 법원의 투자자 패소 판결과 관련, 금감원은 일부 민사소송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반응. - 한편, 1월 29일 2차 제재심에서 은행은 1.3조원 자율배상 감안 시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	**4Q25 과징금 관련 충당부채 적립:** 은행들은 4Q25 실적에 과징금 관련 충당부채로 2천억~3천억원가량을 적립. 이에 25년 실적은 실제 체력대비 낮았지만, 오히려 26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 **자율배상 규모도 고려 필요:** 당초 은행들은 ELS 자율배상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이의 핵심 로직은 배임. 이에 당시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응할 경우,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있도록 최종 과징금은 자율배상을 반영할 것을 공표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은행들의 자율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 이는 반대로 은행들이 1.3조원에 이르는 자율배상을 이행했음에도 ELS과징금의 차감이 없다면, 배임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거나, 혹은 감독당국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가시성을 일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명한 방안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2/3) 25년 1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2조원 돌파, 연중 최고치 기록** - 25년 12월 보금자리론은 2.04조원 판매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23년 11월 이후 최고치 경신. - 보금자리론 판매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지난 해 연말 시중은행의 대출 셧다운 영향이 큰 것으로 지목. 이에 시중은행 대출이 원활하지 않자 보금자리론 취급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 - 다만,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금자리론 금리도 빠르게 상승. 주금공은 1월 0.25%p, 2월에도 0.15%p 추가 인상하며, 이에 최저금리는 4.05~4.35%로 조정, 최저금리가 4%를 상회.	**보금자리론이란? 은행에 잠시 머물러 가는 대출:**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대출 상품으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이용 가능하며 기본 대출 한도는 3.6억원. 해당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되, 은행이 판매창구 역할을 함. 은행은 판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며 이를 재차 유동화하는 구조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잠시 머물러 가는 대출. 즉,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관리 등에서 자유롭고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 **보금자리론 증가 - 시중은행의 대출 셧다운 영향 언급:** 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만큼 신규 대출 취급이 어려웠음.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보금자리론을 대안으로 모색한 것으로 판단. 다만,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 및 구매 가능 주택의 가격 요건 등으로 인해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주택구매와는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 **문제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상승한다는 점:** 시중금리 상승은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으로 귀결. 이는 보금자리론이 주택금융 공사가 발행하는 유동화 상품이기 때문. 즉, 주담대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시 해당 MBS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이 반영되어야 함. 하지만, 서민 대표 상품의 금리 상승까지 맞물릴 경우 수요는 점차 줄어들 수 있음을 고려 필요.
	(2/5) 5대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상승세 지속 - 5대 은행의 1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25%로 25년 9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이는 은행채 금리 상승과 더불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영향도 반영. 실제로 최근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높였는데, 이는 여전히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 (25년 11월 0.76%로 4bp m-m 상승). -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를 축소 중. 25년 5대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0.4% 감소. 은행들은 이보다 생산적 금융에 기반한 기업금융에 보다 초점.	**인터넷은행 - 개인사업자 대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지난 주 실적을 발표한 카카오뱅크의 주가 급등 원인 중 하나는 대출 성장률의 회복. 지난 해 이를 견인한 것은 보금자리론과 개인사업자 대출. 다만, 보금자리론은 유동화 상품이라는 점에서 잔액이 일정 수준 도달할 경우, 유입액과 유동화 규모가 상계되며 순증 기여도가 약화.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카뱅의 경우 1.2조원 연간 증가하였는데, 동사는 추가적으로 이를 늘릴 계획. 이와 같이 가계대출 성장 한계 기조 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 **일각의 우려는 은행간 경쟁 심화에 따른 금리 희생이나 우려 과도:** 일각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 인뱅이 영업을 강화하며 경쟁 심화가 마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그러나, 시중은행은 현재까지 스프레드를 인상하는 상황. 즉, 이는 시중은행들은 올해 개인사업자대출보다는 생산적금융과 연계된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 실제로 우리금융의 경우 한화그룹과 거액의 AI관련 금융 협약을 맺었음.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 인뱅이 연간 1~2조원가량 대출을 늘린다고 해도 마진 측면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건전성 우려? 보증서 담보 대출에 초점:** 일각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 그러나, 카카오뱅크의 실적에서 보면 오히려 최근 대출은 보증서 담보 위주로 증가. 이는 은행 입장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챙길 수 있음을 시사.
	(2/5) 은행 점포 2년간 200개 감소 - 내년부터 통폐합 요건 강화 - 은행들은 최근 2년간 점포를 200개 넘게 폐쇄. 이에 금융위원장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3월부터 도입할 계획을 발표. 즉, 통폐합 시 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질 전망. - 한편, 은행은 최근 디지털 점포를 확대. 다만, 앞으로 은행은 디지털 점포에 보조 인력 1명 이상 배치가 되어야 기존의 점포를 폐쇄 가능.	**은행들의 불가피한 선택:** 은행들의 입장에서 디지털화로 인해 고객의 점포 내방 횟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유휴 점포 혹은 효율성이 낮은 점포의 폐쇄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 **다만, 금융 약자를 위한 대안은 필요:** 다만, 금융 약자를 위한 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은행 및 점포는 지속적으로 디지털화, 무인 키오스크 점포 설치는 물론 정부는 지방의 우체국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은행들의 오프라인 판매채널로 육성하는 방안도 현재 test 중에 있음. 즉, 이러한 노력의 성과에 따라 은행의 점포 효율화의 속도 및 방향성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2/5) 신한카드 을지로 사옥 파인애비뉴 A동 매각 - 매각가 최대 8천억원 거론** - 신한카드가 을지로 사옥인 파인애비뉴 A동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 추진할 것으로 보도. 신한카드 측이 희망하는 가격은 8천억원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하여 신한카드는 5일 매각 자문사 선정을 위한 RFP를 발송. - 신한카드는 지난 2020년 5,200억원에 해당 물건을 인수하였음.	**매각 성공 시 일회성 이익 기대:** 신한카드의 해당 사옥 매각이 성공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관련 이익을 인식할 수 있음. 참고로, 언론 보도에 나온 인수가와 매각가의 차이는 최대 2,800억원 수준으로 추산 가능 (다만 해당 건물에 대한 지분 구조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추가 확인 필요). **다만, 구조적 ROE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다만, 이에 따른 일회성 이익보다는 구조적 ROE 개선 관점에서 접근 필요. 즉, 신한지주는 27년 ROE 목표 10%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매각 이익에 따른 일시적 이익 상승보다는, 1) 부동산 자산의 매각과 2) 해당 자금 및 자본 증가분을 활용한 레버리지 확대 및 수익성 개선에 보다 초점이 필요. 특히, 신한카드의 ROE가 mid-single digit 수준으로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그룹 연결 ROE 개선을 위해서는 신한카드의 ROE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접근 필요.
	(2/5) 주담대 RW 추가 상향 거론 - 금융위원장은 주담대 RW (위험가중치)를 지난 해 15%에서 20%로 인상한 데 이어, 다시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 한편,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와 관련,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 요구권 등 완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언급.	**위험가중치 상향 - 신규 주담대에 적용 시 영향 미미할 전망:** 지난 해에 이어 현재 논의되는 사안은 신규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판단. 즉, 이에 따른 은행 신규 자본비율 부담은 미미할 전망인데, 이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이 작년보다도 낮게 유지될 여지가 크기 때문.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 하지만 실제 소비자 혜택은 쉽지 않을 전망:** 대환대출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은행은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는 만큼 RWA 증가율 및 CET-1비율에 영향. 즉, 주주환원 및 생산적 금융이라는 두 가치를 양립시켜야 하는 상장 은행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금리인하 요구권의 경우, 현재 대출금리 상승을 촉발한 요건이 시중금리 상승인 점을 고려 필요. 결국 스프레드 축소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현재 주담대 금리 스프레드 측면에서 볼 때, 인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증권	**(2/2) 수수료 낮추고 잔고 옮기면 보상…증권사 '복귀 고객' 잡기 총력** -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 복귀 계좌(RIA) 도입을 앞두고 수수료 낮추기, 잔고 이동 보상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거래 수수료 면제 및, 타사 주식 입고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중 -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해외투자 과당경쟁 규제와 맞물려 국내 고객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	**해외 → 국내로 마케팅 경쟁 점화:**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관련 마케팅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 타겟으로 한 프로모션 강화가 관찰되고 있는 모습. 1월 월간 일평균거래대금이 60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는 유례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회사별 장기 고객을 락인할 수 있는 ISA, 연금 계좌 확보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보험	**(2/3) 보험사 배당 시즌 개막했지만…삼성/DB만 웃는 이유** - 보험업계 배당 시즌이 개막했지만, 상장 보험사들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 -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보 등 일부 대형사는 배당 확대에 나선 반면, 상당수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 및 IFRS17 도입 등으로 주주환원 여력이 제한된 모습 -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이 계속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 제기될 것:** 현행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의 경우, 신계약 판매 물량 확대 시 이에 비례하여 보험사 이익잉여금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 다만, 이는 IFRS17 도입 개시 시점 자본 증가에 따른 일시적 과도한 배당 사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제도 도입 초기의 취지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으로, 업계 내 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이벤트 현실화 시 하위 보험사들의 Valuation gap 축소 가능성을 내포하는 중요 이벤트.
	(2/5) 보험 머니, 다시 사모로…아폴로/블랙스톤 '보험사 자산 플랫폼' 경쟁 - 유럽 보험사들이 CLO 투자 비중을 줄이고 사모대출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 아폴로와 블랙스톤 등 대형 운용사들은 보험사의 장기 자금원을 활용해 대출 상품을 제공하며 협업을 확대 - 한편, 유럽은 솔벤시II 체계 개편으로 보험사들의 장기 대출 자산 포트폴리오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투자 조정이 아닌 자산 운용 구조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	**국내 보험사 또한 장기 자금 조달원 관점에서 관심 지속될 것:** 국내 보험사 또한 기존 대체투자를 늘려오고 있던 상황. 다만, K-ICS 도입과 함께 ALM 관리의 난이도가 상승하며, 국고채 비중의 확대가 지금까지는 우선순위 과제였음. 특히, 자본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자산운용 역량이 확보된 대형 자본으로의 인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판단.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2-09(월)		미국 1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일본 12월 경상수지 일본 1월 은행대출 일본 1월 경기현황지수
2026-02-10 (화)		미국 12월 소매판매 미국 11월 기업재고 미국 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12월 수출입물가지수 미국 3년 만기 국채 입찰
2026-02-11 (수)	1월 고용동향	미국 1월 고용동향보고서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 일본 증시 휴장 OPEC 월간 보고서 중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
2026-02-12 (목)	옵션만기일 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미국 1월 기존주택판매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30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12월 경상수지 영국 4분기 GDP 예비치 영국 12월 GDP 성장률 영국 12월 산업생산 일본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일본 1월 공작기계수주(예비치) 대만 증시 휴장
2026-02-13 (금)	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12월 통화 및 유동성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4분기 GDP 잠정치 대만 증시 휴장 중국 1월 주택가격지수
Company event	국내	해외
2026-02-09 (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실적발표	
2026-02-10 (화)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실적발표	
2026-02-11 (수)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실적발표	
2026-02-12 (금)	NHN KCP 실적발표	

자료: 각 사,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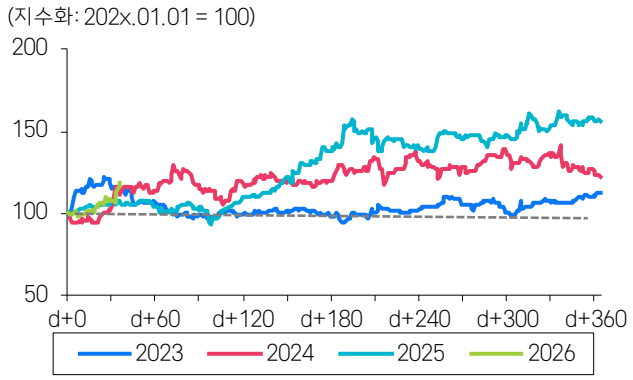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4,080.0	5,089.1						(2.6%)	11.8%	100.6%	20.8%
	KRX은행	202.1	1,549.5						10.8%	18.8%	74.6%	18.8%
	KRX증권	76.8	2,178.9						(0.4%)	33.2%	182.2%	42.4%
	KRX보험	88.7	2,966.3						4.0%	12.0%	55.8%	10.8%
	결제 지수**	1.594	n/a						(5.3%)	21.7%	80.0%	21.5%
은행	KB금융	55.7	149,300	56.2	0.9	10.7	8.6	10.4	10.4%	19.7%	75.9%	19.7%
	신한지주	45.4	93,600	53.3	0.8	10.4	7.9	14.6	11.0%	18.5%	87.2%	21.7%
	하나금융지주	31.9	114,600	49.5	0.7	10.2	7.3	7.5	14.5%	22.6%	86.6%	21.8%
	우리금융지주	23.8	32,450	41.1	0.7	10.3	7.2	5.6	7.3%	16.9%	107.6%	15.9%
	기업은행	18.3	23,000	37.1	0.6	8.6	7.1	0.0	3.8%	10.8%	51.6%	9.8%
	BNK금융지주	5.7	18,500	45.1	0.5	8.7	6.1	15.7	11.4%	19.0%	57.3%	16.6%
	JB금융지주	5.4	28,400	41.8	0.5	9.2	5.8	11.1	12.9%	13.6%	44.9%	10.7%
	iM금융지주	2.8	17,500	49.1	0.9	13.2	7.1	7.1	12.9%	15.8%	89.6%	12.5%
	카카오뱅크	12.4	26,000	50.0	1.7	7.7	23.0	12.2	13.5%	20.4%	10.6%	20.4%
증권	미래에셋증권	27.2	48,000	58.0	1.3	11.2	11.8	14.0	12.3%	71.4%	471.4%	105.6%
	NH투자증권	9.2	25,950	49.3	0.9	10.9	8.5	2.0	(4.1%)	22.4%	85.2%	23.0%
	한국금융지주	11.5	205,500	20.2	0.9	13.6	7.1	-22.4	(4.6%)	20.6%	159.5%	27.1%
	키움증권	11.0	405,000	28.3	1.1	19.1	6.7	14.4	(8.7%)	30.6%	253.1%	39.9%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21.5	122,600	49.9	1.6	24.4	7.0	8.8	5.1%	15.0%	11.6%	8.4%
	삼성화재	23.9	519,000	41.1	1.2	12.4	9.5	12.8	3.6%	6.9%	39.3%	4.4%
	삼성생명	36.9	184,300	45.0	0.6	5.3	12.1	4.1	(2.1%)	13.8%	94.4%	16.9%
	DB손해보험	11.4	164,100	28.7	1.0	19.2	5.2	15.6	15.1%	31.6%	63.4%	25.2%
	한화생명	3.1	3,585	16.4	0.2	5.6	4.1	37.8	2.9%	12.4%	43.7%	10.1%
	현대해상	2.7	29,800	11.7	0.5	17.5	2.9	18.3	5.9%	(2.8%)	22.1%	(3.2%)
결제	카카오페이	8.8	64,900	n/a	n/a	5.6	87.3	57.5	2.4%	34.0%	101.2%	32.2%
	NHN KCP	0.8	21,000	n/a	n/a	17.2	15.1	16.1	(7.9%)	38.6%	190.1%	40.8%
	KG이니시스	0.3	11,250	n/a	n/a	7.5	5.1	5.5	(2.8%)	11.2%	29.6%	10.1%
	KG모빌리언스	0.2	5,360	n/a	n/a	10.7	4.3	8.1	(0.7%)	17.4%	18.7%	14.0%
	나이스정보통신	0.2	23,700	n/a	n/a	9.2	6.0	29.7	(2.7%)	(5.0%)	33.5%	(6.5%)

참고: 2/6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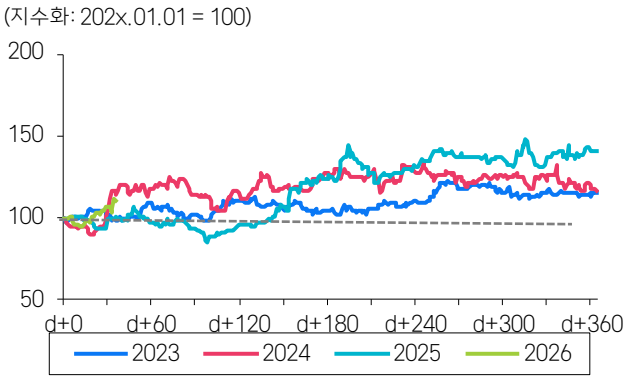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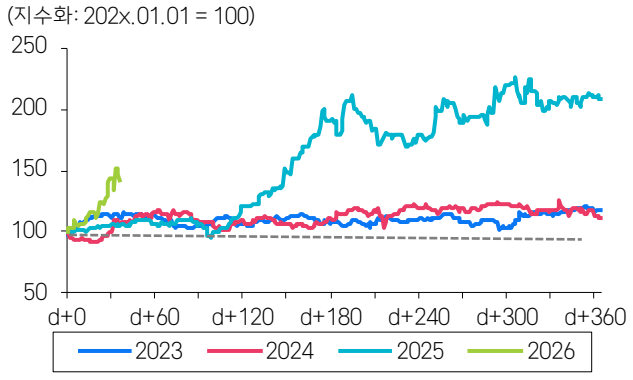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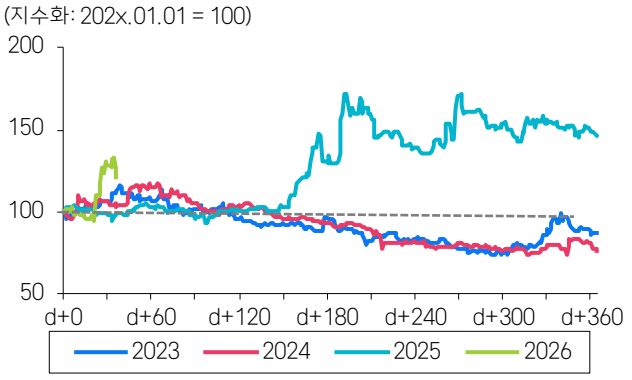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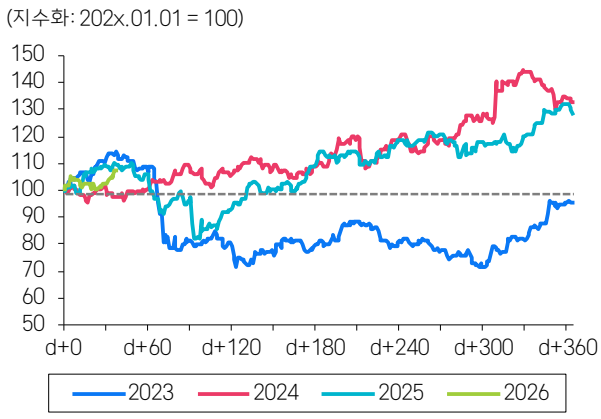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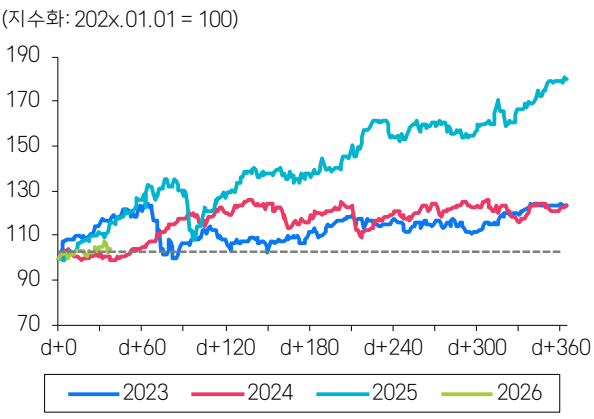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69.3	85.0	2.4	16.3	15.1	6.3	5.4	(2.2)	16.9	0.1
		Bank of America	412.8	98.7	1.4	11.2	13.0	12.3	6.3	0.6	19.3	2.8
		Citigroup	219.5	120.1	1.0	9.1	11.9	47.1	6.0	1.7	50.1	5.1
		Wells Fargo	295.0	96.9	1.7	12.7	13.5	11.3	3.8	(1.7)	16.5	0.8
		PNC Financial	95.1	67.2	1.6	12.8	13.4	9.2	8.6	10.9	20.8	16.2
	유럽	Banco Santander	185.1	77.1	1.3	14.3	8.9	11.6	(1.1)	4.0	92.9	5.9
		Unicredit	136.1	85.4	1.7	16.7	10.1	4.2	0.7	4.6	57.2	4.3
		BBVA	136.2	71.3	1.8	20.5	9.0	10.0	(5.9)	(1.3)	73.3	0.7
		ING Group	87.5	79.6	1.3	14.4	9.4	19.2	2.1	3.9	59.8	6.3
		Lloyds	85.7	86.4	1.3	15.0	10.2	18.3	(2.0)	6.7	70.6	8.7
		Barclays	90.1	62.5	0.9	10.9	9.1	24.1	(1.5)	(1.2)	57.2	0.7
	일본	Mitsubishi UFJ FG	222.5	59.6	1.5	11.1	13.8	10.8	5.2	11.7	54.4	18.4
		Sumitomo Mitsui FG	144.8	54.3	1.4	10.9	13.1	10.1	8.0	12.5	57.8	17.2
		Mizuho FG	116.2	63.6	1.5	11.5	13.8	10.9	8.3	18.6	76.6	28.9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54.3	30.3*	0.6	8.9	6.4	2.0	0.0	5.9	20.6	3.2
		China Construction Bank	272.2	29.8*	0.6	9.5	6.1	1.6	0.8	5.0	26.5	3.6
		Agricultural Bank of China	328.6	31*	0.7	9.7	6.9	1.5	0.5	(0.5)	30.6	(4.8)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99.3	N/A	1.5	6.3	21.9	(8.8)	5.5	1.6	7.6	1.0
		AIG	41.4	51.4	0.9	10.1	10.1	흑전	2.5	(1.5)	2.7	(10.3)
		Travelers Insurance	65.6	58.8	1.6	16.5	10.7	3.4	6.0	6.1	23.0	3.9
	유럽	Allianz	174.1	76.4	2.3	18.1	12.7	7.7	4.1	1.3	21.6	(0.8)
		AXA	98.0	59.5*	1.7	17.0	9.7	(4.0)	3.2	(0.8)	5.6	(3.2)
		Generalli	65.3	56.6*	1.6	14.2	11.6	11.4	3.7	2.4	14.3	(0.3)
	일본	Tokio Marine	74.2	44.9*	2.1	19.0	11.4	4.0	5.5	1.4	19.9	3.9
		Daiichi Life Insurance	33.8	50.7*	1.3	11.8	11.9	6.0	6.2	5.0	36.1	10.2
	중국	Ping An Insurance	169.2	34*	1.2	13.9	8.0	7.7	(4.3)	(0.6)	56.6	6.8
		China Life Insurance	174.6	21.2*	1.4	18.2	7.1	(17.7)	(3.4)	7.1	124.1	23.1
		PICC P&C Insurance	45.1	36.5*	1.1	14.8	7.6	1.1	(2.2)	(4.5)	21.2	(3.2)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89.3	93.6	2.3	16.9	14.2	11.9	(0.7)	(0.7)	41.6	5.7
		Morgan Stanley	286.0	77.0	2.4	17.1	14.8	7.6	(1.6)	(2.6)	28.6	1.4
		Charles Schwab	192.1	87.9	3.4	22.5	15.9	15.6	1.1	3.7	26.3	5.2
		Robinhood	74.6	37.1	6.7	19.5	32.6	23.5	(16.7)	(28.2)	48.3	(26.8)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46.6	80.1	6.4	36.3	17.9	14.1	2.0	(6.2)	13.4	(2.9)
결제	미국	VISA	647.2	21.6*	13.9	65.4	22.9	14.3	3.0	(5.9)	(4.7)	(5.5)
		MasterCard	492.8	17.4*	31.3	184.4	24.5	16.3	1.8	(5.4)	(2.5)	(3.9)
		PayPal	37.2	5.9*	1.5	25.3	6.9	10.8	(23.3)	(30.6)	(47.7)	(30.8)
	유럽	Adyen	42.3	0*	5.4	22.3	27.3	21.9	(9.5)	(21.8)	(26.9)	(17.5)
핀테크	미국	Block	34.0	0*	1.4	8.7	18.8	20.4	(7.4)	(20.2)	(34.4)	(14.0)
		Upstart	3.7	0*	4.0	19.3	32.8	132.9	(2.6)	(24.4)	(44.5)	(12.6)
		Affirm	19.0	0*	3.8	14.0	34.0	59.7	(5.4)	(30.1)	(24.2)	(23.4)
	중국	LuFax	2.4	N/A	N/A	2.4	N/A	흑전	0.0	0.0	0.0	0.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2/6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2월 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2월 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